

#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 주체성이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윤희 · 조규영<sup>†</sup>  
(부경대학교)

## Effects of Sexual Autonomy, Sexual Assertiveness, Sexual Subjectivity on Sexual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Yun-Hee KIM · Gyoo-Yeong CHO<sup>†</s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exual autonomy, sexual assertiveness, sexual subjectivity on sexual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26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with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1.0 program.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exual behavior were sexual attitud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utonomy and sexual subjectivity. And these factors explained 35.7% of the variance in sexual behavior. In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d a need to develop the sex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sexual health among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Sex, Behavior, Autonomy, Assertiveness, Subjectivity

### I. 서론

금욕과 절제를 중요시하는 전통적 성개념에서 혼전 성관계가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적 성 가치관으로의 변화 속에서 성에 대한 태도가 빠른 속도로 개방화되면서 성행동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억제하도록 요구당한 입시 위주의 고교교육에서 벗어나면서 갑자기 자유와 재량의 범위가 커지고 성적 활동이 어느 시기보다 활발해지면서,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성행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성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Hong Bong-Sun 2002). 대학생 성태도 실태조사에 의하

면 남학생의 성경험 빈도는 50.8%로 여학생의 1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성경험이 있는 경우의 9.4%가 임신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인공임신 중절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78.1%에 달하고 있어 대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Shin Kyeong-Rim et al., 2011).

대학생은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완료된 시기지만, 성적 충동을 적절히 수용하고 판단할 성에 관한 가치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체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기초한 성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Jeon Gyeong-Suk, Lee Hyo-Young, Rhee Seon-Ja 2004). 이러한 측면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786, nursingcho@pknu.ac.kr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부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CD-2013-1330)

에서 이성교제, 성행위 등 여러 가지 성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결정된 결과 이상으로 그러한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의 존중은 대학생의 성장에 보다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Hong Bong-Sun 2002). 그러므로 대학생에게 더욱이 강도 높게 요구되는 덕목 중의 하나는 독립적인 자기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대학생 자신에게 적합한 성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갖추어져야 할 역량이라고 본다.

현재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나 빈번한 성행동과는 달리 성행동에 따른 실제적인 문제인 피임, 원치 않는 임신, 인공임신중절, 미혼모, 성병 등에는 무방비 상태로 대학생의 성건강이 큰 위협에 처해 있다(Shin Kyeong-Rim et al, 2011; Eo Yong-Sook, Lee Nae-Young, Kim Ji-Soo 2014). 이러한 성문제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건강, 학업, 진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의 성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경험 실태나 성지식 등을 다루는 기초적인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학생의 성행동에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학생의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음란물 시청경험, 이성교제 경험유무에 따라 성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Soo-Jin, Moon Seung-Tae, Kang Hee-Sun 2011). 또한 성지식, 성태도, 부모 및 이성친구와 의사소통, 자아통제감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Kim Mi-Ok 2013; Sung Mi-Hae 2009), 여전히 성행동과 관련하여 성 건강관리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목표로 삼아야 할 중재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의 성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때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성에 대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의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은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 주체성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성행동을 결정하고, 주장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성적 자율성은 성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의지와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질적인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으로 원치 않는 성교와 임신,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적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내·외적인 조건에 영향 받지 않고 자신의 성적욕구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안전한 성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Kyung-Won, Kang Kyeong-Hwa, Jeong Geum-Hee 2012).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성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Choi Myung-Sook, Ha Na-Sun 2004),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의 발달로 대중 성문화 접촉 빈도가 높은 대학생들이 위험한 성행동은 피하는 한편, 자신이 원하는 성행동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데 있어 성적 자율성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 자기주장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 접촉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그 상황을 피해가는 능력으로 성교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성적 자기주장 정도가 낮았으며(Kim Soo-Jin, Moon Seung-Tae, Kang Hee-Sun 2011), 성적 접촉이 심화됨에 따라 성적 자기주장 능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Sun-Kyoung 2001). 이러한 결과는 성경험 후 이성교제 시 성적 자기주장이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임을 고려해볼 때,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 성적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행동과 성적 자기

주장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 주체성은 스스로 성적 주체임을 인식하고 합리적 판단능력과 이해력을 통해 타인을 강요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강요당하지 않는 자율적이면서 책임감 있는 성행동 결정의 태도로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형성된다(Tolman D., Striepe M. & Harmon T. 2003).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과 상대방이 성에 대한 의사표현을 한 것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성 주체성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 성 주체성은 자기 의사표현을 결정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성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성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Jessica L. W. 2008). 이러한 성 주체성 결여는 애매모호한 자기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성폭력을 불러오거나 비동목적 성관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학생의 개방적 성행동에 성 주체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Young-Gi 2011). 그러므로 대학생의 성행동과 성 주체성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성 주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후기 청소년 시기에 성 경험을 하게 된 경우에 성에 대한 사고를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대학생의 성행동과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 주체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경험에 국한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 변수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변수들이 성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

학생의 성행동과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 주체성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실제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둘째, 대상자의 성행동과 주요변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셋째, 대상자의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크기는 회귀분석에 필요한 수를 산출하였다.

G\*Power(3.1.5)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5$ , 중간정도인 효과크기 .10, 검정력=.95, 독립변수 8개를 포함하였을 때 214명으로 산정되었다. 설문지 회수율을 고려하여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자료가 미비한 경우 24명의 자료를 제외한 226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은 34.5%, 여학생은 65.5%였으며, 1-2학년은 54.9%, 3-4학년은 45.1%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38.5%, 거주형태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52.2%로 나타났다(<Table 1>).

### 2. 연구도구

가. 성태도

성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는 Ho Sun-Min(200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성허용도(9문항), 동성애 허용도(5문항), 혼전 성관계 허용도(6문항), 낙태허용도(6문항), 성매매허용도(5문항), 결혼관(4문항)

<Table 1> Differences in Sexual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xual behavior	t
			M(SD)	
Gender	Male	78(34.5)	21.96(3.24)	4.288***
	Female	148(65.5)	20.05(3.14)	
Grade	<Sophomore	124(54.9)	20.39(5.88)	-1.599
	>Junior	102(45.1)	21.09(5.54)	
Religion	No	139(61.5)	21.10(3.32)	-2.299*
	Yes	87(38.5)	20.08(3.17)	
Residence	With family	118(52.2)	20.38(3.43)	-1.582
	Alone	108(47.8)	21.07(3.12)	

\* $p < .05$  \*\* $p < .01$  \*\*\* $p < .001$

총 3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태도를 의미한다. Ho Sun-Min(2009)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성허용도 .83, 동성애 허용도 .93, 혼전 성관계 허용도 .87, 낙태허용도 .87, 성매매허용도 .86, 결혼관 .8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각각 .84, .91, .89, .90, .89, .82이었고, 전체는 .87이었다.

나.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은 Morokoff P. J. et al(1997)이 개발한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Lee Jee-Yon와 Lee Eun-Sul(2006)가 한국형 성적 자기주장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성행동의 시도 6문항, 원치 않는 성행동의 거부 5문항, 임신 및 성으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 5문항, 의사소통 기술 5문항으로 총 21문항이며 모든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Jee-Yon와 Lee Eun-Sul(2006)의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성행동의 시도 .74, 원치 않는 성행동에 대한 거부 .63, 임신 및 성으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 .73, 의사소통기술 .6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각각

.74, .72, .73, .70이었고, 전체는 .72이었다.

다. 성적 자율성

성적 자율성은 Chang Soon-Bok(2002)의 연구를 근거로 Whang In-Myung(2009)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3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Whang In-Myung(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87이었다.

라. 성 주체성

성 주체성은 Kim Young-Gi(2011)가 개발한 5점 Likert척도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하였다. 성 주체성의 하위 영역은 의사반영(4문항), 자기 이해(4문항), 갈등(4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 친구 간의 성적인 대화에서 자신의 견해나 의지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 Young-Gi(2011)의 연구에서 성 주체성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전체가 .71, 의사반영영역 .81, 자기이해 영역 .76, 갈등영역 .6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가 전체는 .76, 각각의 하위요인은 .80, .78, .71로 나타났다.

마. 성행동

성행동은 Woo Nam-Sik(2005)이 개발한 성행동

측정도구를 Sung Mi-Hae(2009)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손잡음, 애무, 폰섹스, 컷 경험 등 14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3점 척도로 해당문항에 대해 경험이 있으면 ‘예’로 3점,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모른다’에 2점, 경험이 확실하게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1점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Sung Mi-Hae(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5이었다.

###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밀보장 그리고 학문적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언제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설문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 작성요령을 안내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하였으며, 대상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인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율성, 성 주체성과 성행동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 정도의 차이는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셋째, 성행동과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율성, 성적 주체성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넷째,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t=4.288, p<.001$ ) 성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종교가 있는 경우 보다( $t=-2.299, p<.05$ ) 성행동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성태도는 175점 만점에 평균 106.59(15.50)점이었고, 성적 자기주장은 105점 만점에 평균 72.10(7.81)점이었다. 성적 자율성은 65점 만점에 평균 52.97(6.20)점이었고, 성 주체성은 60점 만점에 평균 37.91(5.76)점이었으며, 성행동은 42점 만점에 평균 20.71(3.30)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226)

Variables	Min.	Max.	M(SD)
Sexual attitude	47	145	106.59(15.50)
Sexual assertiveness	50	94	72.10(7.81)
Sexual autonomy	37	65	52.97(6.20)
Sexual subjectivity	23	55	37.91(5.76)
Sexual behavior	14	28	20.71(3.30)

### 3. 성행동과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행동과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성행동은 성태도( $r=.379, p<.001$ ), 성적 자기주장( $r=.357, p<.001$ ), 성적 자율성( $r=.274, p<.001$ ), 성 주체성( $r=.491,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exual Behavior Variables (N=226)

Variables	Sexual behavior
	<i>r</i>
Sexual attitude	.379***
Sexual assertiveness	.357***
Sexual autonomy	.274***
Sexual subjectivity	.491***

\**p*<.05 \*\**p*<.01 \*\*\**p*<.001

#### 4.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인 성별, 종교유무와 주요변수인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율성과 성 주체성을 회귀식에 후진제거방식으로 투입하였다. 명목척도인 일반적 특성 변수인 성별과 종교유무는 가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파악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925로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 상관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잔차 분석 결과 성행동에 대한 회귀표준화 잔차의 정규 P-P 도표에서 선형성이 확인되었고, 산점도도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있어 정규성과 등분산성도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성행동의 영향요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4.390, p < .001$ ), 모형의 설명력은 35.7%였다. 대학생의 성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주체성 ( $\beta=.289, p < .001$ )이었으며, 다음은 성태도( $\beta=.225, p < .001$ ), 성별( $\beta=.187, p < .01$ ), 성적 자기주장( $\beta=.134, p < .05$ ), 성적 자율성( $\beta=.111, p < .05$ ) 순으로 나타났다. 성행동의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text{성행동} = 2.231 + 1.298 \times \text{성별} + 0.210 \times \text{종교} + 0.048 \times \text{성태도} + 0.038 \times \text{성적자기주장} + 0.059 \times \text{성적자율성} + 0.165 \times \text{성주체성}$$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exual Behavior

(N=226)

Variables	B	SE	$\beta$	<i>t</i>	Tolerance	VIF
Constant	2.231	2.039		1.094		
Gender (1: male 0:female)	1.298	0.385	.187	3.373**	.947	1.056
Sexual attitude	0.048	0.012	.225	3.843***	.857	1.167
Sexual assertiveness	0.038	0.017	.134	2.226*	.804	1.244
Sexual autonomy	0.059	0.031	.111	1.916*	.878	1.139
Sexual subjectivity	0.165	0.036	.289	4.553***	.728	1.374

\**p*<.05 \*\**p*<.01 \*\*\**p*<.001

Adj.  $R^2=.357$   $F=24.390$ \*\*\*

###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 주체성이 성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성 건강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행동과 관련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이 주요변수에는 성태도,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 주체성이 성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성행

동을 많이 하여 성별이 대학생의 성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행동 경험이 많다는 기존 선행연구들(Kim Soo-Jin, Moon Seung-Tae, Kang Hee-Sun 2011; Kim Joo-Hee, Song Eun-Il, Kang Sung-Hee 2003)과 같은 맥락을 보였다. 이처럼 성행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학생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남학생보다 높아(Kim Eun-Hwa, Jeon Gwee-Yeon 2007) 남학생의 성행동이 여학생의 성행동보다 더 많이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통적 성개념에 의해 남성에 대해서는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성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 있어(Kim Sun-Ock, Heo Gyun 2008) 성별에 따라 성행동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올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주는 성건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성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Choi Myung-Sook, Ha Na-Sun 2004)와 일치하였다. 성 가치관이 순결, 절제를 중요시하는 전통적 관점에서 절대적 성규범을 반대하고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어 혼전 성관계는 개인의 선택에 있다고 보는 인본적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하면서 성의식이 개방화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짐에 따라 대학생의 성행동 수준이 더 높아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 본인이 선택한 성행동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건강한 성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팀 접근, 문제해결식 등의 다양한 접근법을 적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성적 자율성은 성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험과 성적 자율성을 파악한 연구(Choi Myung-Sook, Ha Na-Sun 2004)에서

도 성경험이 있는 학생의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경험을 통해 성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대처방법과 의지가 향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성적 관계의 맥락에서 외부압력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고 부담을 가지지 않는 능력인 성적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은 원치 않는 성관계 및 임신, 성병을 예방하여 자신의 성 건강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으므로 성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성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성 건강을 위하여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부 연구(Kim Kyung-Won, Kang Kyeong-Hwa, Jeong Geum-Hee 2012)에서는 이성 간에 손을 잡거나 대화까지만 허용하는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이 키스나 성관계까지 허용하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성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성적 자율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수적인 부모와 문화적인 차이로 해석되고 있다. 향후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추후 성행동과 성적 자율성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성적 자기주장은 성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적 자기주장을 많이 할수록 성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이 성경험이 없는 여대생에 비하여 자기주장이 유의하게 높다고 한 Song Hye-Sung(2006)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보였는데, 이는 성장과정에서 이미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주장능력이 이성교제 간 성 접촉 경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녀 대학생의 20.5%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데이트 성폭력에 노출된 경우 원치 않는 임신과 함께 이성에 대한 불신, 대인기피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성교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적

갈등에서 자신의 성 건강을 돌보는 건강행위의 개입프로그램이 대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성적상황에서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적 자기주장이 요구된다. 그러나 성교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Kim Soo-Jin, Moon Seung-Tae, Kang Hee-Sun 2011; Park Sun-Mi, Song Won-Young 2012)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는 성행동을 이성교제, 성관계, 피임 등 다양한 행동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성행동을 성경험 유무만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측정한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성행동을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여 성적 자기주장과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성 주체성은 성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성 주체성이 높을수록 성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 성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성 주체성, 성의미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기존 연구(Kim Young-Gi 2011)에서도 성 주체성이 성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Han Eun-Joo 2003)에서도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성 주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보였다. 사람들이 성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성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 주체성 결여는 애매모호한 자기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성폭력을 불러오거나 비동의적 성관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대학생 시기에 자신이 결정한 성행동에 있어 의사표현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주체적인 성적 관계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실제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적 일탈행위의 방지를 목적

으로 하는 치료적 의미의 성교육은 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보다 먼저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청소년의 성 주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십대의 성행동을 사회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사회문제로 본다는 것이다. 즉 성행동을 막기보다는 임신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성행동을 문제로 보는 미국에 비해 임신율과 인공임신중절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Hong Bong-Sun 2002).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이들의 욕구와 양성평등에 부합하지 못하고(Kim Sun-Ock, Heo Gyun 2008) 전통적 성관점에 기초한 기존 성관련 서비스들은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성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편의추출에 의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행동 측정 도구는 이성교제, 성경험, 성폭력 등 다양한 종류의 성행동을 포함하고 있어 성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및 성 주체성이 책임 있는 성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제한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 그 연구 의의가 있다고 본다.

##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해본



결과, 성별,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율성, 성 주체성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성 주체성이 높을수록 대학생이 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 건강관리를 위하여 원치 않는 성교나 임신 혹은 성병 등의 위험 성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여 성교육 프로그램 중재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책임 있는 성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율성, 성 주체성을 고려한 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성행동과 관련이 있는 주요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총체적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Chang, Soon-Bok(2002).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1), 106~115.
- Choi, Myung-Sook · Ha, Na-Sun(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4), 318~330.
- Eo, Yong-Sook · Lee, Nae-Young · Kim, Ji-Soo(2014). A study on the level of health beliefs and knowledge about Human Papilloma Virus(HPV) vaccination among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6(2), 345~356.
- Han, Eun-Joo(2003). A study on cause having an effect on adolescence's subjective consciousness about sexual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of Silla university.
- Hong, Bong-Sun(2002). A study on sexual subjectivity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3), 79~117.
- Ho, Sun-Min(2009).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of Hanyang University.
- Jeon, Gyeong-Suk · Lee, Hyo-Young · Rhee, Seon-Ja (2004).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Korean Society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21(1), 45~68.
- Jessica, L. W.(2008). Sexual subjectivity; A semiotic analysis of girlhood, sex, and sexuality in the film *juno*, *Sexuality & Culture* 12, 240~256.
- Kim, Eun-Hwa · Jeon, Gwee-Yeon(2007). The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sexual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7), 71~79.
- Kim, Joo-Hee · Song, Eun-Il · Kang, Sung-Hee(2003). A study on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and parents-children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Economics Association* 41(1), 111~124.
- Kim, Kyung-Won · Kang, Kyeong-Hwa · Jeong, Geum-Hee (2012). Self-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1), 51~59.
- Kim, Mi-Ok(2013). Factors that influencing sexual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8), 3876~3886.
- Kim, Soo-Jin · Moon, Seung-Tae · Kang, Hee-Sun (2011). Factors influencing sexu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4), 434~443.
- Kim, Sun-Ock · Heo, Gyun(2008). Content analysis of sex education in high school textbooks based on gender equality,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0(1), 1~11.
- Lee, Sun-Kyoung(2001).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of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7, 212~228.
- Kim, Young-Gi(2011).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double standard, sexual subjectivity, sexual meaning on their sexual behaviors, *Forum for youth culture* 27, 8~37.

- Lee, Jee-Yon · Lee, Eun-Sul(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 sexual self-assertiveness scale for femal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1), 47~62.
- Lee, Sun-Kyung(2001). The effect of cooperative learning on middle school female students's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English subject, Master thesis of Ewha Womens University.
- Morokoff, P. J. · Quina, K. · Harlowm, L. L. · Whitmire, L. · Grimley, D. M. · Gibson, P. R. & Burkholder, G. J.(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SAS)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790~804.
- Park, Sun-Mi · Song, Won-Young(2012). The effects of rape myth and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to the sexual assertiveness in college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2), 265~280.
- Shin, Kyeong-Rim · Park, Hyo-Jung · Kang, Moo-Jung · Park, In-Sook · Bae, Kyung-Eui · Suh, Soon-Rim · An, Ok-Hee(2011). Survey on actuation sexual attitude among college studen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 Song, Hye-Sung(2006). A study of college students in the relationship among sexuality, self-assertiveness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 thesis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Sung, Mi-Hae(2009).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1), 73~80.
- Tolman, D. · Striepe, M. & Harmon, T.(2003). Gender matters; constructing (a) model(s) of adolescent sexual health, *Journal of Sex Research* 40(1), 4~12.
- Whang, In-Myung(2009). A study of Korean students' sexual knowledge, self-regulation,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 Unpublished Master thesis of Eulgi University.
- Woo, Nam-Sik(2005).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 and educati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ians, Unpublished Master thesis of Inha University.
- 
- 논문접수일 : 2014년 09월 12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10월 20일  
2차 - 2014년 10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24일